

스포츠 / 문화

국가대표 필드하키 장수지(교육대학원 2010) 선수

‘금’에 빛나는 선배, 학교와 후배에 무한 애정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필드하키 팀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차지한 아시아 정상자리다. 이번 대회에서 여자 필드하키 팀의 유일한 골키퍼로 참가한 장수지(교육대학원 2010) 선수는 우리학교 동문이자 현재는 우리학교 교육대학원생이다. 인천 아시안게임과 현재까지의 선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장수지 선수는 이번 대회가 아시안 게임으로서는 세 번째 출전이었다. 우리학교 재학 중에 출전했던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4위를 기록했고,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땄었다. 그는 “아시안게임은 선수 은퇴를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출전이었는데 금메달을 따서 더욱 뜻 깊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장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은 험난했다. 지난 대회까지는 후보 골키퍼까지 두 명을 선발했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장수지 선수는 전국 체전을 대비한 훈련에 바로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 명만을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발표 전까지 가슴을 졸였다”며 “오직 한 명만 뽑았기 때문에 이번 발탁은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말했다.

어렵게 선발됐던 만큼 그녀는 온 열정을 이번 대회에 쏟았다고 한다. 그녀는 “개인 운동, 새벽운동 등 여태까지 해왔던 선수 생활 중에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노력은 아시안게임에서 빛을 발했다. 예선 세 경기,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 까지 총 5번의 경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인도와의 준결승 때 어렵게 한 골 뺏긴 것을 빼고는 모두 무실점이었다.

그녀는 골키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활약을 했다. 비록 1실점을 했지만 이 부분도 너무나 아쉬워했다. 그녀는 “골대 측면 옆 망을 맞고 골대 망이 흔들린 것을 심판이 골이라 판단했고, 비디오 판독에서도 볼이 골대측면을 맞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그래도 한 경기를 제외하고 무실점으로 막아내 골키퍼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 선수는 후배들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요즘 학내에 돌고 있는 필드하키부 해체설에 대한 이야기였다. 필드하키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 선발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는게 그녀의 걱정이었다. 그녀는 “하키부 학생들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덧붙여 “선배로서 후배들을 찾아가 응원을 자주 못해주는 점이 미안하다”며 “지금 우리학교 하키부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하며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시 장수지 선수는 전국체전을 위해 제주도에서 훈련 중이었다. 그는 전국 체전을 마치고 나면 대학원 졸업을 위해 학업에 열중할 예정이다. 또한 그녀는 “선수 생활의 마지막 대회가 될 올림픽 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골문을 빙틈없이 지켜냈던 그녀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기아자동차, 놀라움은 멈추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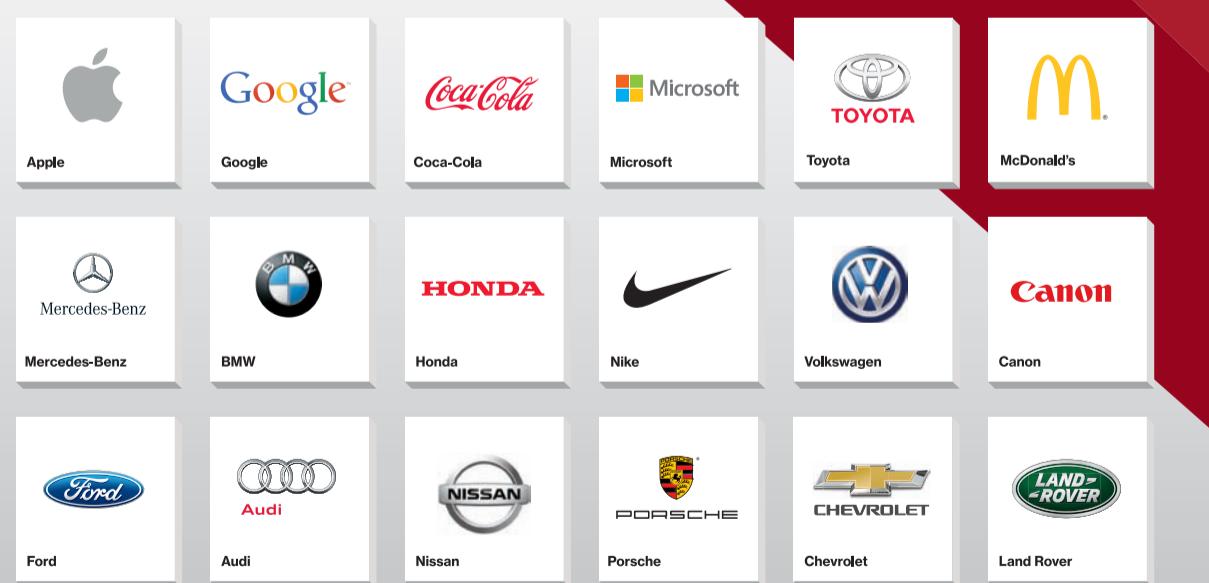
인터브랜드 선정, 2014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74위
2007년 디자인경영 선포 이후 7년만에 브랜드가치 480%상승

-2014년 베스트 글로벌 그린 브랜드 35위
-최근 5년간 글로벌 디자인 상 45개수상, 세계 3대 디자인 상 석권



**Best
Global
Brands
2014**

Interbrand Creating and managing brand value™



KIA
The Power to Surprise

학문과 현실의 만남, 20세기 폭력의 역사를 돌아보다

제2회 후마니타스 가을 영화제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서울】‘제2회 후마니타스 가을 영화제’가 ‘20세기 폭력의 역사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문화기획단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전쟁이나 인종간등, 인권유린 사례 등을 짚어보고, 과거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영화제를 준비한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은정 교수는 “지난 1회 영화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다소 철학적 물

음을 토대로 진행했으나, 참여하는 학생이 적었다”며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기획했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구성원은 별도의 예약이나 등록절차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상영 시간표〉

상영일시	상영작
11/5(수) 오후 6시	태양의 제국 Empire of the Sun
11/6(목) 오후 5시	래드 툴 Red Tomb ※ 감독과의 대화
11/7(금) 오후 6시	토끼 울타리 Rabbit-ProofFence
11/10(월) 오후 6시	오피셜 스토리 La historia oficial
11/11(화) 오후 6시	거북이도 난다 Turtles Can Fly

캠퍼스에서 만나는 아프리카 야생동물



‘AFRICA : wildlife’ 특별사진전

권오은 기자

【서울】‘AFRICA ; wildlife’ 특별사진전 개회행사가 자연사박물관에서 지난 28일 진행됐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박여옥 사진작가가 지난 2008년 보초와나의 ‘모래미 야생보호구역’과 ‘뉴자이판 국립공원’ 등에서 찍은 조류, 포유류, 파충류 등 26종의 동식물 사진을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시한다. 6가지 주제는 AFRICA 철자에 서 따온 Aqua(물), Family(가족), Rest(휴

식), Incidents(사건들), Change(변화), Ambience(분위기) 등이다.

박여옥 사진작가는 “이번에 전시한 사진 속 동물 모두 멸종위기 상태라는 것을 준비과정에서 알았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실제로 동물을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책으로만 만나야 할지 모른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늘 자연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열리며 관람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다.